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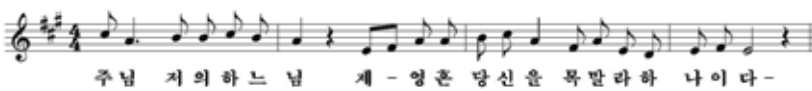


성소주일에 다 함께 모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신부님, 교사들

[제1독서]..... 지혜 6,12-16

[화답송] 시편 63(62),2,3-4,5-6,7-8
(© 2c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낮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1테살 4,13-18<또는 4,13-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마태 25,1-13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221] 받아주소서
 - 성체성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463] 순례자의 노래

복음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¹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²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³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⁴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⁵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⁶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⁸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⁹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¹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¹¹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¹²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¹³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Jesus told his disciples this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en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Five of them were foolish and five were wise.

The foolish ones, when taking their lamps, brought no oil with them, but the wise brought flasks of oil with their lamps.

Since the bridegroom was long delayed, they all became drowsy and fell asleep.

At midnight, there was a cry,

‘Behold,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Then all those virgins got up and trimmed their lamps.

The foolish ones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But the wise ones replied, ‘No, for there may not be enough for us and you.

Go instead to the merchants and buy some for yourselves.’

While they went off to buy it, the bridegroom came and those who were ready went into the wedding feast with him.

Then the door was locked. Afterwards the other virgins came and said,

‘Lord, Lord, open the door for us!’ But he said in reply,

‘Amen,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Therefore, stay awake, for you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묵상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먼 곳에서 오느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불을 밝히고 나가 신랑을 맞으러 했지만, 일부는 등잔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소한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해 불평하며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대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악에 물든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변하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달리 보일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계십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한 점을 찾아 이를 정화해 나간다면,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뵈더라도 기쁘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열 처녀의 비유 (마태 25,1-13)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 -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들

처녀 열 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따로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졸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신랑이 왔다.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겼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혔다. 결국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마태 25,1-13 참조).



"The Wise Virgins", James Tissot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늘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 비유 말씀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이들이며, 어리석은 다섯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다.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한 이들은 종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 말씀의 숨은 뜻이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혼인이 성립됐다. 하지만 약혼한 한 경우에는 합법적 부부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을 한 후에도 일 년 정도를 친정에서 지냈다. 그러다 혼인예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갔고, 신부 또한 친구들과 그들을 맞았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와 신부, 신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혼인예식을 치렀다. 보통 신부와 함께 온 축하객들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신랑 집에 머물렀다. 혼인잔치는 가족 전체와 마을 사람들, 손님들과 행인들에게까지 베푸는 큰 축제로 지냈다. 보통 결혼식에는 연회와 노래, 춤이 함께했는데 이것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신부는 손님을 맞이하는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머물며, 축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시 풍습으로는 신부 친구들이 신랑 집까지 들고 갈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행동이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열 처녀는 신부 친구들로 생각된다(마태 25,1).

근동 많은 지역에서는 한 손에 기름 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기름에 완전히 적신 형짚을 담은 등불을 들고 다녔다. 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다. 또한 당시 혼인잔치는 밤에 진행됐기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밝힐 기름이 필요했다. 처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신랑을 맞을 세심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다.

선행과 의로움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이 비유의 우화적 요소를 정리하면, 신랑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이요, 그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는 것은 종말의 지연(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림의 도래), 열 처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기름은 선행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거부는 마지막 심판을 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현명해야 하고 긴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의 특별히 아름다운 점은 신랑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과 신랑이 오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모아 함께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날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원래의 비유에 마태오 복음사가가 재림의 지연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교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을 첨가했다고 본다.

이 비유는 독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경고로서의 기능이다. 우리는 모두 현명해야 하고 긴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로와 약속의 기능이다. 이 비유의 특별히 아름다운 점은 신랑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과 신랑이 오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모아 함께 잔치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이다.

2017년 성소주간 행사



지난 11월 5일(일)부터 11일(토)까지 미국 전 교구에서 진행된 성소주간 행사가 본당에서도 처음 열렸다. 성소 주일인 11월 5일(일)에는 주일학교와 학생 미사, 청년 미사 때 본당을 방문한 네 명의 La Salette 소속 수녀님들과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 ▷ CCD 1-6학년: 수업 시간에 성소 관련 과제물을 통해 성소에 대해 배움
- ▷ CCD 7-8학년: 레오니다/히야친다 수녀님들과 함께 성소에 관한 수업 진행
- ▷ CYO 9-12학년: 에밀리타 수녀님과 성소에 관한 수업 진행
- ▷ 학생 미사: 교구 신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동영상 시청과 에밀리타 수녀님의 성소 이야기 들음
- ▷ 청년 미사: 교구 신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동영상 시청과 아미리사 수녀님의 성소 이야기 들음

방명준(라우렌시오) 보좌 신부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번 성소주간 동안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침묵과 고요함 속에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역임원 교육

위령 성월인 11월 구역임원 교육이 34명의 구역 봉사자와 구역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일) 10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라는 복음(마태 25,1-13) 묵상을 통해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깨어 있음' 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헌인 예복' 같은 것으로 기도생활, 선행, 희생, 자선행위 등 의로운 삶을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 토의로 구역 재조정 등에 대한 찬반 투표, 10시 미사 주차안내 봉사에 대한 협조 요청, 소공동체 모임 지원비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위령성월 기도문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구인광고

■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치과에서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풀타임/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한분
 이메일 : shkim2020@gmail.com

■ 사무직 파트타임(영어능통) 구함
 문의: (323)939-1668

■ 델리 유경험자 구함(알링톤)
 문의: 조 크리스티나(571)344-9019

소사예사 연말 콘서트

“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올해도. ”

12월 8일(금) 저녁 8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 주세요

청년 찬양밴드 소사예사(소리사랑 예수사랑)는 연말을 맞이하여 신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신 신자분들을 위로하고자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올해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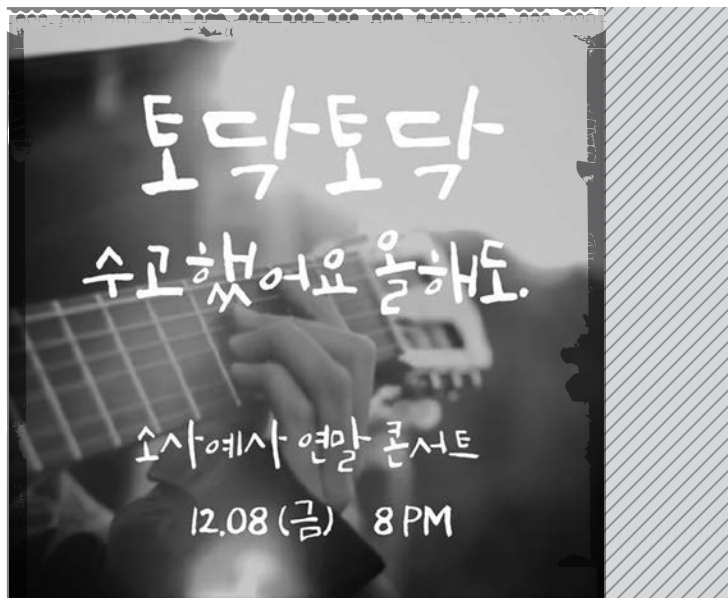
올 한 해 힘드셨거나 행복하셨던 사연을 익명으로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는 위로의 노래나 축하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또 사연을 적어 주시는 분들께는 라플 티켓을 드리는데, 콘서트 당일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콘서트 전까지 매 주일마다 성당 앞에 마련된 소사예사 사연 접수 테이블에 오셔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분의 Story 모집

Story에 어울리는 노래 · 공연

공연 후 티켓 추첨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모두 저희 성당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기쁨은 늘리고, 아픔은 서로 위로해 주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자는 지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8시에 친교실에서 열리는 무료 콘서트에 오셔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CYO Lock-In

Lock-in is an event for CYO students where they are “locked” in at the church. The purpose of this event is to bring students closer to God as we focus on group activities through small group discussions, fun games, and praise.

Lock In began with mass on Nov 3rd, Friday. During mass, Father Paik explained that being locked in the church is the same as being locked in God’s heart.

Because the students do not always get to know other grade members of CYO, an event like Lock In allows them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and about God through religious and group activities. Despite the short duration of the event, the CYO teachers planned a packed schedule in order to keep the students engaged with each other. It wa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teachers to get closer with the students, since we had many new teachers this year. I was personally in charge of praise, which is another form of prayer to God. It is always my favorite part of CYO.

Our hope as CYO teachers is for the students to enjoy various ways to pray to God. Lock in was fun, and we cannot wait for Winter Retreat!

Lock-In은 CYO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룹 토의와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Lock-in은 금요일 저녁 미사로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에 끝났는데, 백인현 신부님께서 금요일 미사 때 “학생들이 하나님 품 안에,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Lock-In”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YO 학생들이 다른 학년 학생들이랑 자주 못 어울리는 만큼 이런 시간을 통해 친해지고 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많은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에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CYO 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기도 방법이지요.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을 겨울 피정에서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 Elaine Lim(임서영 루도비카), 10th grade CYO teacher



CCD-News

3rd grade Open Class

The 3rd-grade class had open class on November 5th with parents observing the students learning about God’s message.

The 3rd-grade students learned about “Discernment” and why we should listen to and follow God’s commands through fun class activities.

The students seemed focused entirely on their class and enjoyed it. It wa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was the national vocation awareness week.



ANNOUNCEMENT

1. First Communion Registration Service

- **When :** 10/22-11/12 (Sundays), 9:30am-1:30pm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The first class will be on Wednesday, Dec. 6, 7:40 pm**

2. Food Drive for "Feeding the Family"

- **When :** Nov. 5 - Nov. 18 at the Hasang lobby
- **Kinder - 2nd:** Dried Elbow Macaroni Pasta (16 oz)
No prepackaged Mac&Cheese products, please.
- **3rd - 5th:** Canned Tuna in Water or Oil (5 oz)
- **6th - 8th:** Canned Cream of Mushroom Soup (10 1/2 oz)

3. Jr. High Thanksgiving Pot Luck & Meal Packaging

- **When :** Nov. 18(Sat), 6pm-9pm
- **Where :** Multipurpose Rooms A1-A4 & Parish Hall

- 1 단체장 회의**
• 일시: 11월 12일(일) 오전 11:30(B-1,2)
- 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11월 12일(일) 오후 1시(B-3,4)
- 3 복서단 모임**
• 일시: 11월 12일(일) 오후 1시(B-1,2)
- 4 주일학교 교사회의**
• 일시: 11월 12일(일) 오후 1시(교무실)
- 5 독서단 정기총회(전례부)**
• 일시: 11월 12일(일) 오후 1시(성당)
• 대상: 평일미사팀, 토요 특전미사팀, 일요일 8시, 10시 미사팀
• 문의: 박상태 요한 부회장 (703)302-0026
- 6 사도 임원회의**
• 일시: 11월 17일(금) 오후 8시(B-1,2)
- 7 하상회**
• 일시: 11월 19일(일) 오전 11:30(B-3,4)
- 8 안나회**
• 일시: 11월 19일(일) 오전 11:30(A-1,2,3,4)
-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1월 19일(일) 오전 11:40(하상관 B-4,5)
- 10 베드로회**
• 일시: 11월 19일(일) 오후 1시(B-3,4)
- 11 동중부 지구 울프레이아**
• 일시: 11월 19일(일) 오후 2:30
• 장소: 워싱턴 성당
• 미 동중부 지구 울프레이아를 개최하오니 꾸리실리스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곽도덕 도미니코 (703)608-9664
- 12 CYO Thanksgiving Pot Luck Dinner**
• 일시: 11월 18일(토) 오후 6시(친교실, B-1,2)
- 13 Jr.High Thanksgiving Pot Luck & Meal Packaging**
• 일시: 11월 18일(토) 오후 6시(친교실 A1-A4)

- 14 소사에서 무료 연말 콘서트 '도덕도덕, 수고했어요 올해'**
• 일시: 12월 8일(금), 미사 후 (친교실)
• 올 한 해 동안 겪었던 기쁜 일과 힘든 일 등 신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 15 첫 영성체반 신청**
• 신청: 11월 12일까지, 오전 9:30-오후 1:30(하상관 로비)
• 첫 수업: 12월 6일(수) 오후 7:40
• 문의: 윤정 보일 (703) 371-3589
- 16 2018년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습니다.
- 17 2017-2018 재정부원 임명**
• 위원장: 김효중 토마스
• 위원: 조영훈 안토니오, 허진 세바스티안, 전양수 요셉, 지경수 요한
- 18 하상 성인학교 휴강**
•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주간 동안 휴강합니다.
• 휴강일: 11월 21일(화), 11월 24일(금)
- 19 청국장 가루 주문**
• 성모회에서 청국장 가루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 문의: 장 에디타 (703)973-7159
- 20 동중부 ME 송년파티**
• 송년파티에 ME 부부 모두를 초대합니다.
• 일시: 12월 2일(토) 7시 30분 미사 (친교실)
• 문의: 김생금 레지나 (703)477-2446

추계 대청소

구역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12일(일)에 실시됩니다.
다음은 구역별 담당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실 A-1,2,3,4	애난데일: 교실 B-1,2,3,4
웨어팩스 1: 교실 A-1,2,3,4	리우데: 교실 B-1,2,3,4
우드브리지: 현관, 화장실	비엔나: 본당(1,2층), 유아실
버크: 사제관, 나눔터(청소 및 낙엽 제거)	웨어팩스 2: 본당건물 주위(청소 및 낙엽 제거)
웨어팩스 3: 사제관, 나눔터(청소 및 낙엽 제거)	
알링턴·폴스: 친교실 홀, 바다, 유리청소	
스프링필드: 주일, 보좌 신부님 방, 복도	
프린스윌리엄: 친교실 홀, 바다, 유리청소	

* 2차 헌금(11월 11일, 12일) *

Arlington Mission Office에서 필리핀 Banica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을 실시하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32주간: 여호7-12장 / 루카 5장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1월 16일(목) 오후 5:00-6:00
11월 17일(금) 오후 8:00-9:00
11월 19일(일) 오전 6:00-7:00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 여행 : 거룩한 땅으로의 초대
- 씨스티나 합창단 서울 공연 하이라이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1월 5일 (연중 제31주일)

주일헌금	\$ 7,538.00
교무금	\$ 9,7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4,13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1,43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사몬), 박제중(요셉), 송영해(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로로), 신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전선희(데레사)

♥ **군복무자**
강로리(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필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마카렐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1월 12일(일)	연중 제32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1,2), 추계 대청소(10시미사 후), 주일학교 교사회의(오후 1시), 복서단 모임(오후 1시,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서통독반(오전 11:50), 전례독서반 모임(오후 1시, 성당)
13일(월)	연중 제32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4일(화)	연중 제32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바로로 기회부 모임(오후 8시)
15일(수)	연중 제3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6일(목)	연중 제32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7일(금)	형가리의 성녀 엘사벳 수도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 임원회의(오후 8시, B-1,2)
18일(토)	연중 제32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소후원회 모임(오후 12시, B-1), CCD/CYO Pot Luck Dinner
19일(일)	연중 제33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성서통독반(오전 11:50)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오후 1시, B-3,4)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홍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피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피아노 레슨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 차(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DC 703-815-2300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